

운명과 자유-최인훈의 초기 소설 연구

조경덕(평택대)

1. 들어가며

최인훈은 1959년 『자유문학』에 「GREY 俱樂部 顛末記」(59.10.)와 「라울傳」(59.12.)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최인훈의 작품 여정에서 보았을 때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의 심문 모티프와 「라울전」의 라이벌 인물 구도는 의미심장하다. ‘심문’ 모티프와 라이벌 인물 구도는 이후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심문’ 모티프는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을 만큼 최인훈 소설에서 빈번하게 반복된다. 「GREY 구락부 전말기」에서 ‘GREY 구락부’ 성원들이 경찰에게 그 모임 취지에 대해 취조를 당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광장』에서 명준이 월북한 아버지 문제로 남한 경찰에게 심문을 당하는 장면, 『회색인』과 『열하일기』 등 이후 작품에서도 주인공이 심문 당하는 장면은 자주 등장한다. 심문의 주체는 남한의 경찰일 때도 있고 북한의 공산당 간부일 때도 있다. 최인훈은 남한과 북한 모두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로 규정하며 ‘심문’ 모티프를 통해 당시 사회가 하나의 큰 취조실이었음을 보여주며 분단 상황의 현실을 강하게 환기시킨다.

「라울전」의 인물 구도도 최인훈 소설에서 반복된다. 이에 대해서는 ‘심문’ 모티프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적었다. 최인훈 소설의 라이벌 인물 구도는 주인공이 작중 라이벌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해 열패감을 느끼는 특징이 있다. 이는 「라울전」의 라울과 바울 간 관계에 이어, 『광장』의 명준과 태식, 『회색인』의 독고준과 김학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그렇다면 최인훈이 이러한 라이벌 인물 구도로 작품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2. 바울의 ‘회심’: 「라울전」의 예정론

우선, 최인훈의 추천 등단작이자 라이벌 인물 구도가 시작된 「라울전」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작품은 이천 년 전,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후, 부활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독교를 전면적인 배경으로 한 작품인 「라울전」은 신약 성경 서신서의 저자 사도 바울과 가공의 인물인 라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바울과 가말리아 선생 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라울은 어느 날 갑작스레 등장한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사료를 꼼꼼하게 읽고 연구한 결과 그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울은 선뜻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풍문과 사료로 예수를 접했을 뿐 직접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고 메시아라고 확신할 만큼 경솔하지 않았다.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바울도 예수가 메시아를 자칭하며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인물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붙잡아 처형하려 다녔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라울을 협박하며 그 생각을 철회할 것을 종용한다. 학창 시절부터 바울과 라이벌이었던 라울은 바울에 대한 반박 심리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라울은 예수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게다가 바울이 예수의 편이 되어 돌아났다는 풍문도 전해 듣는다. 메시아임을 확인하기 위해 만나기를 별렀던 예수가 처형당한 것도 그렇거니와 바울이 예수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

실은 라울을 절망에 빠지게 하였다. 늘 바울에게 열패감을 느껴 왔는데 이번에도 메시아를 알아보는 데 있어 주저하다가 그 선편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것이다.

신앙과 진리의 영역뿐만 아니다. 생활의 영역에서도 라울은 바울에게 패배한다. 라울은 집안에서 인자한 주인이었던 터라 하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예의 엄격함과 고지식함 때문에 여중 시바의 사랑을 막는다. 라울을 방문한 바울은 우연히 여중 시바의 곤란을 알게 되어 그를 데리고 로마로 간다. 스스로 신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신앙인으로서 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던 라울은 그 모든 것이 허울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처럼 라울은 바울에게 철저히 패배하고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비극적인 결구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로 작중 초반에 서술자는 라울과 바울의 인물됨을 비교하여 제시한다.(발터 벤야민, 2015)¹⁾ 서술자에 따르면 “자랄 때부터 두 사람은 뚜렷이 다른 아이였다.”(「라울전」, 최인훈, 2002: 48) 라울은 조심성과 깊은 믿음이 뚜렷했고, 그 성정으로 ‘여호와와의 빛’을 읽으며 신앙했다. 그와 반대로 바울은 팔팔하고 조급했으며 신앙이 있었다기보다 단지 집안일을 잇는다는 이유로 제사장이 되었다. 라울은 가공의 인물이니 그의 성격은 작가가 부여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존 인물이었던 바울의 성격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일까. 우선 성서에서는 이러한 성격적 특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아무 뜻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신학 연구 보고도 없다. 바울의 성격 역시 라울의 경우처럼 임의로 부여된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실존 인물 바울에 이러한 성격을 부여하여 라울과 대치시켜 놓은 것일까. 이는 「라울전」의 핵심 물음, 왜 신의 은혜는 라울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어지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보자면 「라울전」에서 예수의 적통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인물은 바울이 아니라 라울이다. 신앙을 진지하게 추구한 라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이성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려는 라울의 시도가 벽에 부딪치는 결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이수형, 2006:321)²⁾ 이 세상은 이성으로서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작중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라울전」을 라울의 이성적 탐구가 좌절하는 서사로 읽는 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광장』의 명준의 서사를 생각하면 자연스럽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작중에 라울의 패배와 바울의 승리에 대한 근거가 성서 구절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뒷날, 측근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말 끝에 라울의 이름이 오고 갔을 때, 바울은 듣고만 있다가 끝에 가서 차디찬 투로 그의 서간(書簡)에 있는 저 유명한 말을 되풀이한 것이었다.

“용기가 용기쟁이더러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빗었느냐고 불평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용기쟁이는 자기가 좋아서 못생긴 용기도 만들고 잘생긴 용기도 빗는 것이니”라고.(최인훈, 2002:73)

1) 벤야민에 따르면 “운명과 성격은 보통 인과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성격은 운명의 원인으로 칭해진다.” 그런데 인과율이 지배하는 세계는 마성적 실존 단계의 한 잔재이다. 도덕적 인간이 저 고통스러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는 것에서 비극의 숭고함이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바울과 비교하여 라울의 신실함을 묘사해 둔 것은 이야기의 비극성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수형은 「라울전」이 “신의 섭리라는 원인에서 비롯된 종교적 결정론에 대한 알레고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인용문은 「라울전」의 마지막 대목이다. 라울이 자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의 바울의 반응을 담은 것이다. 바울은 토기장이³⁾에 관한 말을 읊조리고, 서술자는 이 바울의 말을 “그의 서간에 있는 저 유명한 말”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바울의 서신,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로마서 9:20-21절)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과 백성 중,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을 근거 삼아 이를 논증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자식인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이삭의 자식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과 유기(遺棄)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합리한 처사다. 인간의 노력 혹은 능력 여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과 유기(遺棄)가 행사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유가 인간의 자유를 압도한다는 것으로서 인간은 당연히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답으로 바울이 덧붙인 것이 위에 인용한 토기장이의 비유이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겐 왜 자신을 천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조물주인 하나님에게 왜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울전」에서 바울의 이 말은 라울의 패배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한다.⁴⁾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택하신다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인간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라울전」 마지막에 인용된 「로마서」 구절은 단순히 에필로그에 그치지 않는다.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정론 교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 너머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구원과는 하등 관계가 없고 구원은 오직 신이 임의로 결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노력을 모두 무화시키는 허무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라울전」은 라울과 바울이라는 라이벌 인간 구도를 통해 기독교에서 제기하는 예정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라울전」을 기독교 교리와 결부하여 논의를 전개한 연구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흥미로운 점은 「라울전」이 예정론 교리에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본 연구자들은 다시 라울에게로 돌아와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의 성격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예정론 교리는 ‘그’의 구원은 성격과 관련 없다고 보는 것인데 연구자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어느새 성격과 운명의 연결 고리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운명과 성격을 관련시키는 사고가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3) 인용문에는 ‘옹기쟁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대 성경에는 ‘토기장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토기장이’라고 표현한다.

4) 라울의 운명은 작중에서 가마리엘 선생을 찾아온 이집트 점쟁이에게 제시되기도 한다. 가마리엘 선생은 바울과 라울의 운명을 점쟁이에게 물어 보아 점쟁이는 바울은 대길과 대흉이 반반이라고 답하지만 라울의 운명에 대해서는 그리스 말 대신 이집트 말로 하며 답을 직접적으로 말하길 회피한다. 라울의 불행한 운명이 작중에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하는 「라울전」을 기독교의 교리를 문제 삼은 작품으로 간주한다. 그는 「라울전」에는 “어째서 신은 진지하고 경건한 라울과 같은 사람을 팽개치면서 진지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게다가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기까지 한 바울과 같은 자에게 은총을 내리는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질문은 기독교에 대한 뼈아픈 공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서의 신은 애초부터 이성의 기준 따위를 존중해 본적이 없기에 이런 식의 공격은 의미가 없다고 진단한다.(이동하, 1992:40~41) 또한 신의 은총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치열성’이라는 기준으로 주어진다고 말한다. 라울의 실패 원인은 라울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즉 신이 버린 것일 수도 있지만 신의 전적인 유기가 아니라 그에게도 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나 우유부단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구원의 문제를 추구하는 적극성과 치열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이동하의 판단이다.(이동하, 1992, 43) 이에 따라 그는 라울을 버리고 바울을 선택한 신의 결정은 신의 자유의지라는 기준에서 볼 때에도 정당한 것이고, 삶의 치열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에도 정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수형은 「라울전」에 기독교의 예정설이 담겨 있다고 전제하며 그것으로 최인훈의 결정론적 세계 인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라울의 실패 원인을 그의 비이성적 요소에서 찾는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라울을 이성적 주체로 보았지만 실상 라울은 바울에 대한 운명적 열등감이라는 정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때문에 진리를 놓쳤다는 것이다.(이수형, 2006:324)

신익호는 신정론(神正論)의 관점에서 「라울전」을 검토한다.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운 존재인데 왜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불행해지며, 악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대한 물음에서 논의를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는 라울이 패배한 이유를 라울에게서 찾는다. “말로는 여호와를 믿고 그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 했지만 결단력과 실천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이동하의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다(신익호, 2012:219~223).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따르면 이동하, 이수형, 신익호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논리가 「라울전」 중에 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작중에 담긴 예정론 교리의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 작중 라울의 패배의 원인은 신의 뜻에 있다기보다는 라울 자체에 있다고 결론짓는다. 왜 작가가 예정론 교리를 작품에 담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어느새 폐기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라울과 바울의 인물 구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작중, 라울의 ‘반문’은 온당하지 못한 것이 된다. 라울은 라울 스스로의 결함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신이 임의로 그를 버렸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라울의 ‘반문’은 그냥 무시되어도 좋은 것일까?

신은, 왜 골라서, 사울 같은 불성실한 그리고 전혀 엉뚱한 자에게 나타났느냐? 이 물음을 뒤집어놓으면, 신은 왜 나에게, 주를 스스로의 힘으로 적어도 절반은 인식했던! 나에게, 나타나지를 아니하였는가? 하는 문제였다.(최인훈, 2002:70)

라울이 제기한 이 문제는 인간의 신에 대한 ‘반문’이다. 신은 성실하게 이성으로 탐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라울이 보기에 바울은 자신보다 이성적 탐구에 성실하지 않았고 신에 대해 신실하지 않았다. 심지어 바울은 지상의 권력을 탐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까지 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신은 라울이 아니라 바울에게 나타났다. 라울의 절망은 인간 이성의 체계가 무너짐에서 비롯되었다. 라울의 ‘반문’은 「로마서」에 등장하는 토기의

‘반문’과 궤를 같이 한다.

칼 바르트는 『로마서 강해』에서 토기의 ‘반문’을 ‘항변’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인간은 하나의 항변하는 상대로서 처음에 이 하나님에 대해 맞서 있다”고 하면서 이 행위 자체를 ‘도착(倒錯)’이라고 말한다. 결과로서 생긴 토기가 원인인 토기장이와 같은 선상(線上)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책임성과 하나님의 자유를 대치시키며 양자 사이에는 “시간과 영원,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좁혀지지 않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칼 바르트, 1997:541)

여기서 ‘항변’, ‘맞서 있다’와 ‘도착’이라는 표현이 주목을 요한다. 인간이 신을 향해 ‘항변’하는 것은 ‘도착’적인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맞서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이다. 라울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다.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 인간의 자유를 끝까지 주장한 것이다. 작중에 묘사된 라울은 그만한 결기가 있는 인물이다. 라울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억압이 가해오자 스스로 자유, 즉 정치적 자유를 지켜낸 바 있다. 예수를 모함하라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압박을 거부한 것이다.

“랍비 안나스, 본인은 분명히 거부합니다. 만일 나사렛 사람 예수가, 여호와의 율법에 어긋나는 자이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것이라면, 본인은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은 그 나사렛 사람이 누군지 아직 보지도 못한 까닭입니다. 또, 만일, 이 나사렛 사람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때문에 고발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본인이 알 바 아닌 줄로 압니다. 이는 로마 벼슬아치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닌 까닭입니다.”(최인훈, 2002:56)

인용문은 랍비 안나스가 라울을 심문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로마 관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안나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라울에게 어려운 일이었으나 바울에 대한 분노와 자신이 아는 것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그는 안나스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와들와들 떨면서, 줄곧 눈길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앉아 있었”음에도 끝까지 신념을 지켜낸 것이다. 심문 상황에서 라울은 자신의 자유를 지켜내었다. 세상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운명일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를 예정 교리라는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라울전」의 내용에는 담겨 있다.

2. 태식의 ‘회심’: 『광장』의 운명

앞서 말했듯이 「라울전」의 인물 구도는 최인훈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에서도 반복된다. 명준이 태식에게서 열패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광장』의 주인공, 명준은 「라울전」의 라울과 성격과 운명이 많이 닮았다. 둘 모두 이성의 힘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진리를 찾지만 결국 실패한다. 또한 둘 다 삶의 마지막을 자살로 맺는다. 이 같은 사실은 「라울전」이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다룬 작품이면서 동시에 최인훈 초기 소설의 중요한 맥락을 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명준이 찾는 메시아는 참다운 정치 체제다. 그는 그 메시아를 찾아 남한과 북한을 오가나 그 어디에서도 결실을 얻지 못한다. 남한에서 명준은, 아버지 친구의 집에서 기식한다. 아버지 친구에게는 딸, 아들이 있는데 명준은 그들과 친구처럼 지낸다.

모조리 재미투성이다. 영미한테는 아마 삶이란 재미면 그만인 모양이다. 그러나 미군 지프

콩무니에 올라앉아서 미국의 유치원 아이보다 못한 영어로 재롱을 부리는 게 사립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것일까. 자동차 이름과 카메라 이야기와 미국에는 높은 집이 많다는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의 본보기며, 삶의 새로운 틀을 가져온 옮김꾼이란 일은 영터리 같기만 하다. 영미의 오빠 태식은 음악을 배우는 학생이면서 카바레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도 닳은 오뉘인지 물림일 거라고 명준은 늘 새삼스러워 한다. 그 부모에 그 아이들(『광장』 최인훈, 2006:34)

인용문은 영미와 태식에 대한 명준의 생각이다. 철학과 3학년생 명준의 눈에 비친 영미는 삶에서 ‘재미’만 추구하는 여학생이다. 그는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미국 문화를 추수하고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미국인과 어울린다. 명준은 친구이자 영미의 오빠인 태식 역시 영미와 닳은꼴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음악을 한다고 하면서 카바레에서 색소폰을 분다. 애인도 매번 바꾸어 명준은 “그런 사이를 애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최인훈, 2006:44) 반문하기도 한다. 명준은 이러한 남매의 모습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여긴다. 아버지 친구는 고아나 다름없는 자신을 거두어 준 은인이지만 남한 권력에 기생해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낮추어 보는 것이다.

태식에 대한 명준의 인식은 흡사 라울의 바울에 대한 인식을 연상케 한다. 라울은 바울의 괄괄한 성격과 공부에 게으른 것을 버르잡어 그를 낮추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게 두려움을 가지기도 한다. 운명의 편이 바울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명준이 친구 태식을 바라보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명준은 태식과 길을 걷다가 태식이 권투 선수를 보고 “고독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 실없이 내지르는 말에 깜짝 놀란다.

명준은 아찔하다. 권투 선수와 고독을 한줄에 엮는 태식의 그 말이 그대로 안겨온다. 선(禪) 같은 데서 비법을 주고 받을 때, 스승이 똥단지 같은 물음을 불쑥 던지면, 뛰어난 제자가 마찬가지 헛소리 같은 사실로 받아넘겨서, 두 사람 사이에 홀아비 사정을 홀아비가 안 빙그레 웃음으로 마음이 마음을 알아, 깨달음의 주고받음이 이루어지는, 옛 우리네 마음 놀이의 저 기합술 같은 수작의 생김새는 아마 이런 것이라 싶게, 태식의 한마디는 명준의 가슴에서 대뜸 울려오던, 그런 일이 있다. 그 후 그들은 특하면, 고독해서 그러는 거야, 엉뚱한 데다 그 말을 쓰곤 했는데, 버스 콩무니를 바짝 따라가는 자전거 선수이든, 로터리에서 교통정리하는 순경의 경우든, 국산 기관포로 강냉이를 튀기는 아저씨의 경우든, 모조리 그럴싸한 데는 놀라고 만다.(최인훈, 2006:45)

길에서 웨도우 복싱을 하며 가는 권투 선수와 고독이라는 단어는 논리적 연관이 없다. 특히 이성으로 난 길을 따라 가며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명준에게 권투 선수와 고독을 엮는 직관은 낯선 것이다. 여기서 명준이 놀란 것은 권투 선수와 고독의 관계가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럴 듯하다는 것에 있었다. 명준과 태식은 자전거 선수, 순경, 강냉이 튀기는 아저씨 등에게도 고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말놀이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럴싸하게 연결되는 것에 대해 명준은 감탄을 한다. 자전거를 타고 교통 정리를 하며 고물이 된 기관포로 강냉이를 튀기는 모습 등의 해방 공간의 일상에서 고독을 발견한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장난 이상으로 태식이 그 시대가 담고 있는 쓸쓸함을 직관으로 포착한 것이라고 명준은 생각하는 것이다. 태식이 명준 자신이 생각하는 것 너머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 것은 한국전쟁 발발 후 취조실에서다.

한국전쟁 때 명준은 인민군 장교로, 태식은 국군 장교로 참전한다. 둘은 취조실에서 만난

다. 태식은 소형 사진기로 서울 돌레에 흩어진 공산군 시설을 찍다가 잡혔고 이에 명준은 인민군 장교로서 태식을 취조하게 된 것이다. 명준이 태식의 집에서 기식했던 것을 생각하면 둘의 관계는 역전이 되었지만 여기서 명준은 오히려 열패감을 느낀다.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방탕한 개인주의자라고 업신여겼던 태식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한 것이다. 명준은 태식에게 남한이 목숨을 바쳐 보존할 값이 있는 체제냐고 묻는다. 그러자 태식은 값이 있어서만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애국자’가 된 것은 “6월 25일에서 오늘까지뿐”(최인훈, 2006:146)이라고 답한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러 다닌 것처럼 태식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 동안 방탕했던 삶을 청산하고 위태한 나라를 구하는 데 전심한 것이다.

명준을 당혹스럽게 한 것은 태식의 변화뿐만이 아니었다. 그에게 “더 뜻밖의 일은 윤애가 태식과 결혼했다는”(최인훈, 2006:144) 사실이였다. 윤애는 명준의 남한 시절, 명준의 연인이었다. 명준은 윤애에게 마음을 주며 “태식보다는 몇 갑절이나 잘 사랑하겠다고 뼈졌”(최인훈, 2006:89)다. 그러다 남한 사회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윤애와 사랑이 실패하여 월북하였는데 윤애는 태식의 부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명준은 체제와 이념에 대한 충실성에서 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태식에게 졌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은 태식의 ‘회심’이다.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태식의 ‘회심’을 바울의 그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후 예수를 탄압하는 자에서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바울의 ‘회심’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와 사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태식은 한국전쟁 발발이라는 사건을 맞닥뜨린 후 나라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군인(첩자)이 되었다.

신념의 탄생과 그것에 대한 집요한 실천이라는 의미의 ‘회심’은 라울과 명준과 같이 회의하고 번민하는 인물형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그렇다면 ‘회심’은 그 인물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일까. 기독교의 의미 지평에서 ‘회심’은 행위자의 주체적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의 주도적 행위에 행위자 자신을 맡긴 것이다.(권터 보른캄, 2010:65)⁵⁾ 태식의 ‘회심’은 어떤가? 태식의 ‘회심’은 바울의 그것처럼 해석할 수는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바울의 ‘회심’은 신앙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신념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념이 주체적 의지와 결단으로 추동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주체적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신이라는 절대 타자의 이끄심으로 수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의 주체는 주체의 자기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자기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신앙의 길로 들어선다. 그렇다면 태식의 ‘회심’은 바울의 ‘회심’에 비추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둘은 주체의 ‘자기 포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때 ‘자기 포기’는 예의 ‘자포자기’의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인간 주체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에서 얻는 용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대한 적극적인 체념에 따른 것이다. 태식은 자신의 첩보 활동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부각하지 않는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고 그것에 이끌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왔을 뿐이라고 명준에게 말한다. 바로 그 대목이 명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었다. 주체의 이성과 의지로 세상을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이 『광장』

5) “유대교적인 신앙의 정열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던 자가 굴복하게 된 것은, 신에 의한 것이지만 어떤 참회하는 죄인의 회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 것은 높임을 받은 주가 그를 박해하던 자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의 증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에는 있는데 그것은 「라울전」의 기독교 세계관과 비슷하다.

3. 황 선생의 ‘자기 비움’: 『회색인』의 우연

최인훈의 초기 소설에서는 기독교가 자주 호출된다. 첫 번째 추천작 「GREY 구락부 전말기」에는 현과 키티가 ‘여호와의 증인’ 교파 모임에 참석하고 그 모임에 대해 비평을 가하는 대목이 있다. 그 대목에 “그 너무나 자로 켜 성경 해석에 현은 도리어 떨떠름해졌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과학’으로 성서를 재단하고 인식하려는 데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유념할 것은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명징하게 해석해내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인훈의 또 다른 초기 소설,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한 유명한 관음선사는 기독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초논리주의는 동양 종교의 전매 특허가 아니고, 종교 일반의 공통성, 즉 더불어 서는 광장이란 말입니다. 또 선에서 비법을 물려받은 것은 반드시 석학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조 가운데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자조차 있었는데, 이것은 초 교양주의라고나 할까요. 이 또한 기독교에도 있는 현상으로서, 은총을 받고 성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박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을 본받으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도대체 사람의 배움에 대한 경멸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⁶⁾

인용문에서 관음선사는 초논리주의는 동양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갖는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성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은총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서의 한 구절, “들에 핀 백합을 본받으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움에 대한 경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성으로 세상을 담아내려는 노력에 대한 회의와, 은총은 밖에서 주어진다는 생각이 역시 담겨 있는 것이다.

여기서 토기장이의 반문을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하자. 최근 바울 논의를 촉발시킨 『바울의 정치신학』의 저자, 야콥 타우베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지만 바울의 하느님은 주사위놀이를 합니다. 이 신은 어떤 이들은 축복을 주기 위해 선택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저주합니다. 칼뱅주의적 형식을 따르자면, 이건 주사위놀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을 것인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거죠. 아, 물론, 사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복잡하죠. 그렇지만 원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즉 <축복이든 저주든> 선택은 주사위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마치 도자기가 도공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어볼 수 없듯이-왜 이렇게 창조했냐고 물어볼 수 없습니다. (야콥 타우베스, 2013:197)

여기서 타우베스는 ‘칼뱅주의적 형식’, 즉 예정론 교리에 대해 ‘주사위 놀이’라는 표현을 쓴다. ‘주사위 놀이’는 우연을 의미한다. 예정론은 우연은 아니다. 신이 선택과 유기를 미리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주사위 놀이’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것을 표상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의 토기장이 이야기를 한다. 타우베스는 ‘신에게 반문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6) 최인훈, 「열하일기」, 『우상의 집』, 문학과 지성사, 165면.

역사를 인과적으로 풀어보려고 할 때 근본적으로 막히고 마는 벽, 그것을 나는 역사의 근본 우연이라고 부르고 싶다는 말이야.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도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일이야. 서양 열강은 중국이라는 코끼리떼한테 저마다 달려들어 살점을 떼내느라고 그 옆에 있는 토끼나 버쩍 마른 원숭이한테는 그닥 열을 내지 않았다는 것뿐이야. 역사란 슬픈 것이어서 어떤 쪽이 잘 된다는 건 대개 어김없이 다른 한편의 희생 위에 서 있어. …(중략)… 여기에 한 개의 주사위가 있다고 생각하게. 이 주사위는 좀 이상해서 그 여섯 개의 면(面)이 각각 살아 있어서 쉴 새 없이 자유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게. 그러니까 가만 뒹두어도 이리저리 면이 바뀐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거인(巨人)의 손이 있어서 이 움직이는 주사위를 집어서는 던지고 집어서는 던지면서, 어떤 놀음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게. 이 면(面)들이 역사상의 민족이라 하고 거인의 손을 역사의 법칙이라 한다면 어느 면이 나오는가는 이 주사위 스스로 움직이는 미시적(微示的) 자유 운동과 거인의 손에 의한 거시적(巨視的) 자유 운동의 힘이 만들어내는 우연이 아니겠는가. 인과의 율을 따지고 보면 그 깊은 심연 속에는 뜻밖에도 이 ‘우연’이 미소하고 있단 말이야. 불교에서는 이 이치를 공(空)이라고 말하고 있어. 공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노력하는 것도 인연(因緣)이며, 인연은 공이라는 것이지. 불교 철학은 인과율의 막다른 골목, 그 아포리아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공을 본 것이야. 나는 우연·공·운명·신(神)-이것들은 다 한 가지 뜻이라고 생각해.(『회색인』, 최인훈, 2005:162~163)

인용문은 『회색인』중, 황 노인이 역사에 대해 김학에게 말하는 대목 중에서 뽑은 것이다. 일본이 어떻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서양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정치학도, 김학의 질문에 황 선생은 그것은 우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인과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이 서양처럼 부강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황 선생은 사실 서양이 일본을 침략하지 못할 만큼 약하지도 일본이 부강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당시 세계 상황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일본은 식민지가 되지 않고 제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황 선생은 주사위 놀이를 비유로 든다. 그리고 이것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우리는 삶의 현상을 인과율의 논리로 따지는데 사실 그 심연에는 논리로 따질 수 없는 ‘우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우연’은 「라울전」에서 토기장이 비유로 뒷받침되었다. 위 인용문에서 황 선생은 ‘우연’을 불교의 ‘공(空)’ 개념에 대입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우연’, ‘공’, ‘운명’, ‘신’을 하나로 꿰고 있다. 불교와 기독교가 초논리의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칫 역사 허무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다.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고 한국이 식민지 국가가 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우연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책임을 회색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황 선생 발언의 주지(主旨)는 여기에 있지 않다. 황 선생이 우연을 설명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나라를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이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도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일”이며 우리는 힘이 없어 나라를 잃었다고 자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만하지도 않고 자학하지도 않는 것이 황 선생이 대학생 김학에게 말하는 가르침이자 “요즈음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바이다.

김학은 황 선생과 이야기를 하면 “여태껏 어느 누구한테서도 느끼지 못한 깊은 기쁨 속으로”(최인훈, 2005:160) 빠져든다. 자신을 너무 괴롭히고 초조해하는 젊은 청년들 중 하나인 김학의 마음에 황 선생의 말은 달게 스며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광장』과 『회색인』에는

젊은 주인공에게 조언을 해 주는 중년 혹은 노년의 현자형(賢者型) 인물이 등장한다. 『광장』에는 고고학자(考古學者)인 정 선생, 『회색인』에는 천년의 고도(古都)에 터를 잡고 사는 바로 이 황 선생이다. 아마도 작가는 당시 방황하는 청년에게 신화적·역사적 깊이와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광장』에서 명준이 정 선생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두면 『회색인』에서 김학의 수용(受容)은 『회색인』이 최인훈의 초기 소설 여정에서 어느 정도 소결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황 선생의 우연 혹은 운명을 전제한 자기 비우기의 철학은 자학과 자기 초조함에 빠진 청년들에게 건네는 조언이다.

황 선생의 조언을 수긍하는 김학은 독고준과 라이벌 관계로 등장한다. 둘은 절친한 친구 관계라 앞서 작품처럼 독고 준이 김학에 대해 열패감을 느끼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독고 준이 사색형 인물이라면 김학은 행동형 인물이라는 점에서 독고 준은 라울, 명준의 후배이며 김학은 바울, 태식의 계승자이다. 독고 준은 김학과 자신은 다른 형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를 ‘좋은 놈’이라고 생각한다.

A. 이 땅은 구조할 수 없는 땅이야. 한국. 세계의 고아. 버림받은 종족. 동양의 유태인. 사랑받는 김학 선생.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려는 거요? 유다여, 그대의 일을 하라고 뽀내고 싶으신가요?(최인훈, 2005:66~67)

B. 그런데 독고 준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일까. 그는 혼자서 세상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최인훈, 2005:92)

「라울전」과 『광장』에서는 각각 라울과 명준만이 초점화되어 있다. 그에 비해 『회색인』에서는 독고 준과 김학이 번차례로 초점화자와 초점화 대상이 된다. 인용문 A는 독고 준의 생각이다. 그는 기독교의 언어들을 빌어 한국의 현실을 사유한다. 그는 한국이 ‘세계의 고아’이며, ‘버림받은 종족’이라고 하면서 한국인을 ‘동양의 유태인’이라고 규정한다. ‘고아’, ‘버림 받은’이라는 의미 자질을 한국인과 유태인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은유 바탕에서 독고 준은 김학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 한국에서 불가능한 정치 개혁을 실현하려는 그를 스스로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독고 준으로서는 김학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김학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인용문 B는 독고 준에 대한 김학의 생각이다. 김학은 독고 준에게 자신들의 동아리로 들어오길 권유한다. 그러나 독고 준은 김학의 제안을 거부한다. 김학은 홀로 세상에 대한 싸움을 이어가는 독고 준이 안쓰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다. 독고 준이 홀로 있으려 하고 김학이 함께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의 반영이다. 진리는 연대의 문제이기도 한데 진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탄생시키기 때문이다.(테리 이글턴, 2010:156) 독고 준은 진리를 찾지 못했고 김학은 진리에 충실하다. 이처럼 독고 준과 김학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존중한다. 『회색인』의 인물 구도에는 황 선생의 조언이 스며들 여백이 존재한다.

4. 나가며

최인훈의 문단 추천작이면서 두 번째 작품, 「라울전」은 기독교의 주요 사건인 바울의 회심과 예정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작가가 「라울전」에서 보여주었던 기독교에 관한 관심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작품에서 몇 가지 모티프를 통해서 반복되거나 변주되며 나타난다. 이 글은 작가가 「라울전」, 『광장』, 『회색인』의 라이벌 인물 구도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이들 소설에서 진리를 찾는 문제는 신을 찾는 문제와 동등에 놓여 있다. 한편 기독교에서 신을 찾는 문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절대적 행위이다. 「라울전」에서는 신앙과 공부에 애썼던 라울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광장』에서는 참다운 정치 체제를 찾기 위해 애썼던 명준이 아니라 태식이 체제의 수호자가 되었다. 작중에서 라울과 명준의 실패는 운명으로 경험되며 비극으로 성취된다. 그렇다고 해서 라울과 명준의 자유가 부정되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인간이 세상에 무기력하다는 존재론적 운명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른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의 길을 획득하는 것이다. 50년대 남한 현실에서는 주체의 힘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에 따르면 당시 가혹한 현실은 우리 민족이 힘이 없었기에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인훈의 초기 소설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라울전」의 예정론은 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력함을 이야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50년대 자기는 많은 경우, 자학하는 자기였으며 그와 동시에 강한 힘을 추구하는 자기였다. 따라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자학을 그치고 강한 힘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최인훈 소설의 주인공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완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테리 이글턴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극적 인본주의자⁷⁾인 셈이다. 비극적 인본주의는 인간은 자기 비우기와 근본적인 개조를 통해서만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변화된 세계가 반드시 태어난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자기를 비운 주체는 희망하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최인훈 초기 소설의 라이벌 인물 구도에는 인간이 무기력하다는 존재론적 고백이 담겨 있다. 그것은 가혹한 운명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자유의 가능성을 내포한 적극적인 체념이었다.

참고문헌

- 최인훈(2002). 「라울전」. 『우상의 집』. 문학과 지성사. 2002.
최인훈(2006). 『광장』. 문학과 지성사. 2006.
최인훈(2005). 『회색인』. 문학과 지성사. 2005.
최인훈(2002). 「열하일기」. 『우상의 집』. 문학과 지성사.
칼 바르트. 조남홍 옮김(1997). 『로마서 강해』. 한들.
컨터 보른캄. 허혁 옮김(2010). 『바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발터 벤야민 지음. 최성만 옮김(2015). 「운명과 성격」.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외』. 길.
야콥 타우베스 지음. 조효원 옮김(2013). 『바울의 정치신학』. 그린비.
테리 이글턴 지음. 강주현 옮김(2010). 『신을 옹호한다』. 모멘토. 2010.
이수형(2006). 「최인훈 초기 소설에서의 결정론적 세계와 자유」.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06년 4월.
이동하(1992). 「「목공요셉」과 「라울전」에 대하여」. 『신의 침묵에 대한 질문』. 세계사.
신익호(2012). 「신학적 神正論의 관점에서 본 문학-〈라울전〉과 〈고양이는 부르지 않을 때 온다〉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53집. 국어문학회. 2012년 8월.

7) 위의 책, 216면.